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강원기독교사의 첫 페이지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조남진 장로님의 생애를 추모하며
공의로운 세상 만들기

기획연재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포니브리지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25X20cm 사각형에 목숨? 걸다

영화 김복동 |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

영화 미나리 Minari

도서 천로역정 | 어른답게 말합니다.

건강음료 | 토마토의 신비

여름저녁 | 정명성 시인

243

Fall 2021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사전 5:1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회복 · 연합 · 사명으로

2021년 9월 4일(토) ~ 9월 10일(금)

저녁집회 저녁 7:30 / 목회자 세미나 수요일 오전 10:00

순복음춘천교회 실시간 방송 www.ccfgc.net



안효성 목사
물신원성서목회 교회



정필도 목사
수경로교회 개척, 원로 목사



김원평 교수
원광대학교 원광신학대학 석좌교수
총장교회 원로
대한성서학회이사단연합 대표
홍익대 명예총장 원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정은경 선교사
한국 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선교사
가나인 농촌교회(안도 회목회) 부교장
미국과 한국연대 부대표

	9/4(토)	9/5(주일)	9/6(월)	9/7(화)	9/8(수)	9/9(목)	9/10(금)
오전 10:00	춘천성시화 제2회 족구대회 오전 9:00 장소 - 공저천 족구장 - 송암동 족구장			목회자 세미나 (정필도 목사)	목회자 세미나 (정필도 목사)	포럼C 차별금지법 (김원평 교수)	
저녁 7:30		저녁집회 (안효성 목사)	저녁집회 (안효성 목사)	저녁집회 (정필도 목사)	저녁집회 (정필도 목사)		블려싱춘천 (정은경 선교사)
주관	춘천목회자 족구회	기독교연합회 목회자연합회	율리클립 장로연합	복지단체 직장선교회	문화단체 선교회	기독교연합회 성시본부	대학선교 성시본부

■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춘천율리클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강원CBS, CTS강원방송,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춘천기독교작장선교연합회
(사)춘천 연탄은행, 법상공동체, (사)베드로선교문화센터, 춘천 운전기사 선교회, 월드비전, YMCA, CBMC, CCC, DFC, ESF, GBT, IVF, JDM, 예수전도단
어린이전도협회, 강원기독교문화회, 강원도 기독교미술인협회, 춘천군선교연합회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인물인터뷰 | 성시화운동연구소

- 05 강원기독교사의 첫 페이지(춘천기독교 역사) | 노성호 연구원
- 07 내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현천 목사

기획특집

- 08 한국성시화운동의 초석인 원로 조남진 장로님의 생애를 추모하며
| 김영명 장로
- 10 공의로운 세상 만들기 | 김선일 KBS PD

기획연재

- 12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포니브리지 | 김동정 장로

문화 | FOOD MOVIE BOOK

- 15 혼밥족 25X20cm 사각형에 목숨?걸다 | 이관형 권사
- 16 영화(미나리 Minari) | 김춘배 화백
- 18 영화감상 |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힌 베드로
- 19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 20 건강 | 토마토의 신비
- 21 여름저녁 | 정명성 시인



후|원|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
시
화



강원기독교사의 첫 페이지

- 춘천기독교 역사 -

노성호 연구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 신앙 배경과 사회 경력

장로교회(예장 통합)를 출석하는 친가와 성결교회를 섬기는 외가의 만남으로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1970년대 교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험하지도 않았고 도로 사정도 걷는 사람들에게 위험하지도 않아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혼자 걸어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최대의 적은 매주 주일 아침에 방송한 “공룡수색대”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학교와 “공룡수색대”를 놓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집안 분위기상 고민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보다 재미있는 일이 거의 없던 시절 교회를 다닌 저는 지금의 학생들에 비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이 그만큼 적었으니까요.

당시 교회에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나무 마룻바닥에 빨간색 방석, 예배당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그 냄새.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 가도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겠지요.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를 순서대로 올라가서 대학부, 청년부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학생 때는 교회가 제일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지금은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한국역사에서 획을 긋는 국난극복기 연구에 특히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 자연스럽게 춘천의 근·현대사와 기독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 춘천기독교 역사 작업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내느라고 바쁠때는 돌아볼 여유가 없지만 어느정도 형편이 되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간에 역사를 정리하려 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남아 있을때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알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춘천 기독교 역사가 벌써 12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만 이를 정리한 작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춘천기독교 120년사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번째 답이 있습니다.

춘천기독교사는 단순히 춘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원도기독교사의 첫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개교회의 역사로 정리된 부분은 있지만 ‘춘천기독교 역사’라는 시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또한 현대사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서 신앙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력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춘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춘천은 ‘성시화운동’이라는 현대의 모범적인 신앙운동을 시작한 바로 기원지입니다. 그렇기에 춘천기독교 120년사를 정리하여 어떤 힘이 ‘성시화운동’이라는 열매를 열리게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잘 키울수 있고 궁극에는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 이유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큰일은 2016년 4월 어느날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춘천기독교연합회 차덕수·오익석·정덕현 등 여러 목사님들이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첫 모임을 갖고, 이후 김동정 장로님과 심재연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2019년에 구체적으로 목차를 정하고 집필 부분을 나누어 집필을 시작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지되었다가 2020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연구소가 새롭게 생기면서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3. 사료의 중요성과 호소

120년사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사진은 그 어떤 문장보다 울림이 큼니다. 개인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진일지라도 그것이 춘천기독교 120년사에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와예배, 노방전도, 수련회, 부흥회, 성탄성극, 기념예배 등 어떠한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잘 스캔해서 원본과 스캔파일 모두를 돌려드리고 중요한 사진은 120년사의 한 페이지에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4. 신앙의 좌우명

아직 신앙의 좌우명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백척간두전일보”의 때인것 같습니다. 그럴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발 한발 나아가야겠습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의 대장정도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현천 목사 (춘천 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

최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격적으로 전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다시 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신천지의 주 포섭 대상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빙아웃(신천지 커밍아웃)하여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여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신천지의 미혹과 모략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미혹들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신천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외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사이버에 대해 그동안 한국의 주요 언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단 사이버는 봉사활동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사회적인 이미지를 색인하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 언론사는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는 신천지예수교교회(이만희 총회장)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사회면 일반 기사 옆에 실린 기사형 광고는 제목에 신천지와 이만희 씨에 대한 선교적인 홍보 기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표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독자(시민,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 감시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댓글 등)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에 이단 사이버 피해자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분노하며 상처를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천 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는 이단 사이비를 예방하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과 가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여호와 닮으!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이단 사이버 모임(성경공부)이나 장소 및 가게(기업),
유인물 등을 제보해 주세요.

T.033) 253-1260 / 후원계좌 : 신한 131-021-169908
춘천성시화운동본부(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한국성시화운동의 초석인 원로 조남진 장로님의 생애를 추모하며...

김영명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4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며 참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마지막 자서전 "곧 오십니다"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택함을 받으신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20대 중반 대학 4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몇 차례 육체적 연단 과정을 통해 39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한 후 50여 년을 새 생명의 삶을 사신 장로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갖게 된 기자의 꿈을 대학졸업과 동시에 이루게 되었고, 1970년대 초 언론사 증권간부로 활동하면서 언론인의 지위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수많은 지식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새로운 장을 여시고 전설적인 동역 관계의 금자탑을 세운 평신도지도자

40대 초에 청년 김주환 전도사를 만나 49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순복음춘천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까지 장로님은 언제나 담임목사님을 '목회의 전문가'로 인정함은

물론, 치리사역 결정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16여 년 동안 이웃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해민 사랑의 집” 운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개척하신 김주환 목사님께서 조기은퇴를 선언하신 후, 후임목사를 세우는 과정과 “원로목사 추대 및 이수형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준비하여 교회치리권의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게 한 것은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동역 관계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초석이며 성시화운동의 세계화로 하나님의 인류구원을 위한 세계선교, 선교한국의 이미지를 한층 새롭게 하는 한국성시화운동의 증인된 삶

70년대 초 장로님이 이끄신 “평신도성경구락부”로 응집된 평신도 기도모임이, 민족복음화운동 주체인 C.C.C.와 만나 처음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90년대 중반 춘천의 도단위기관장들이 크리스천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장로님을 언론사 사장으로 오르게 하였고, 96년도 평신도 성시화운동 조직으로 만든 “춘천홀리클럽”의 초대회장, 같은 해 창립된 “춘천성시화운동” 초대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각각 4년 역임하시면서 성시화운동 요원 양성, 초창기 사무소 운영기금 마련, 성시신문창간, 제1회성시화선교대회, 기독교지도자 기도모임을 통한 직장선교의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십자가평화대행진 등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09년 12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탄생하기까지 대전, 청주 등 국내 성시화운동 준비도시를 다니시며 성시화운동 설명회를 갖는 등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의 하나님나라운동, 성시화운동에 쏟은 헌신의 삶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며,

장로님의 “평신도성경구락부” 모임을 통해 꿈꾸고 기획하고 혼신을 다해 섬겨온 <예수 더 알기 운동>, 교회공동체를 통해 몸소 실천해 보이신 <순종과 동역의 믿음생활>, 사회직장생활을 통해 뿌리고 가신 <예수님의 향기>, 범죄 없이 살기 좋은 춘천도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도자들과 함께 흘리신 기도의 땀방울, 일상 속에서 남기고 가신 삶의 흔적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섬기시던 교회공동체 안에, 춘천성시화운동체의 모든 영역에, 우리 춘천도성 하나님나라 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생전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남긴 부탁의 말씀 - “도시부흥,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길에 너희들이 함께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걸어갈 이 사명의 길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질 줄 믿기에 너희들의 앞길을 기대하며 축복한다.”

공의로운 세상 만들기

김선일 (KBS PD)

현시대만큼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때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만을 위한 정의를 펼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030세대는 기성세대가 공정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노를 표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상대방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공의로운 세상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세대가 공정과 공의,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갈등과 반목 그리고 폭력적인 대치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날 때 온전하고 완전한 공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책찍질하셔도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뒤로하고 정의로만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로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와 멀어진 세상이 된 것은 그들이 외치는 정의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사랑 안에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 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공의로 자신은 만족시킬 수 있어도 타인과 더불어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공의만으로 개혁을 단행하면 반대쪽 진영은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말하며 폭력적인 대치를 일삼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지속하면 지도자는 공의를 방해하는 상대에 대하여 분노가 차올라 두들겨 패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격해집니다. 결국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다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국회로 보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의 공의는 세상을 더 폭력적인 곳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또한 하나님 사랑 없이 가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가족들 사이에 폭력적인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펼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의는 나타낼 수 있으나 공의가 사라진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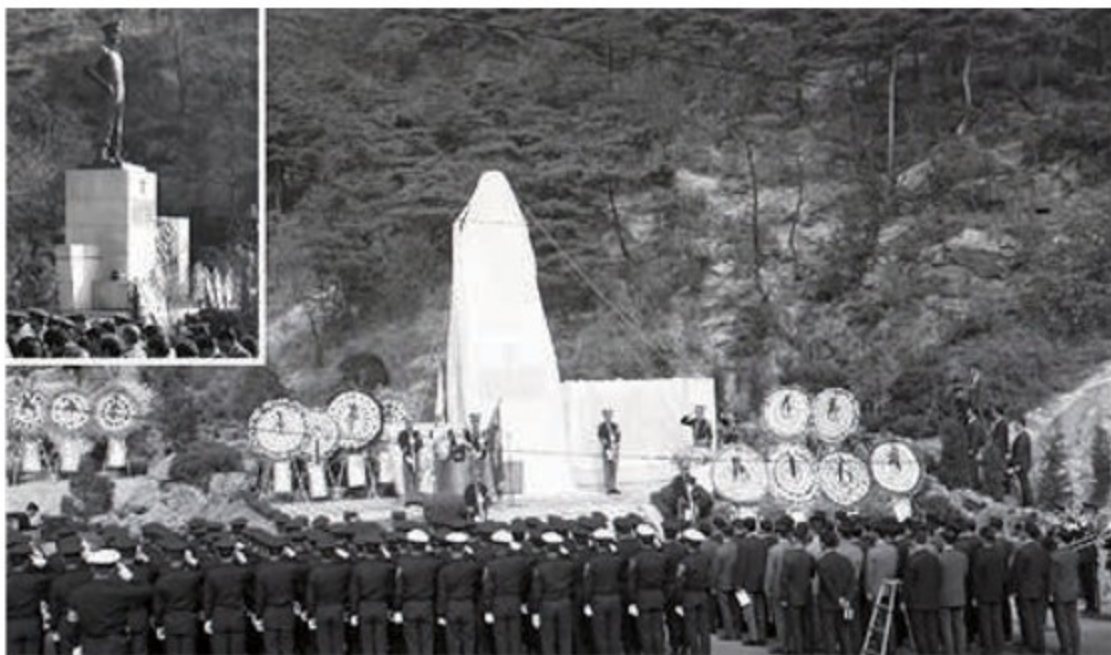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포니브리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신조 일당 저지하다 순직한 춘천출신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 동상 제막식(1969.1.21)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 때 이들을 저지하다가 순직하였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수도권 잠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검정고개의 지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였다.

군·경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2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그날 밤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춘천출신 종로경찰서장 총경 최규식(崔圭植)이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하였다.

그는 1932년 9월 9일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우두리(현 춘천시 우두동)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때 가족이 북간도로 갔었는데, 1945년 8월 초에 최규식 어머니가 규식과 광옥 남매를 데리고 친정인 춘천 우두에 왔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최규식 아버지 최정현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던 어머니 정경덕은 우두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서정근 장로가 운영하는 우두양로원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최규식은 천전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의 헌신과 서 장로의 도움으로 춘천중학교(현 춘천고)와 춘천농업학교(현 소양고)를 다녔으며, 서 장로와 이진호 전도사의 권유로 감리교신학교에 들어가 예과를 다니다가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6·25전쟁을 맞이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 돌아와 고모집 주변에 땅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춘천수복 때에는 학도호소탕에 일조하였다. 1950년 11월 18일 마석피란 때 마석을 거쳐 서울로 갔다. 그 후 육군 포병장교로 군에 입대하였고 정보장교 등을 역임하였다. 5·16군사정변 후 충북경찰국 정보과장으로 발탁, 승진되었고 마침내 1967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장이 되었다.



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단란했던 가족 (우측 유정화 사모)

포니브리지 다리 [현 소양2교 1951년 8월 1일 건립]와 안내판

포니브리지(FORNEY BRIDGE)는 1951년 7월 8일에 착공하여 1951년 8월 1일에 완공된 목교[나무다리]이고 군인 기술자에 의해 한국에서 건설된 가장 긴 다리(1880ft : 573m)로서 날씨와 물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6일만에 완공되었다. 미 62공병대대에 의해 군수물자 보급용으로 건설되었고 준공식에는 미 제9군단장 윌리엄 호지(William M. Hoge) 중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다리이름은 미 24사단 19공병단을 지휘하던 포니(FRANK HARTMAN FORNEY) 대령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1950년 11월 29일 북한지역의 청천강 군우리 주변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치를 때 전사하였다. 이에 62공병대는 포니 대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다리 이름을 '포니브리지(FORNEY BRIDGE)'로 명명하고 아울러 추모의 글을 안내판에 남겨 그를 기억하도록 하였다.

이 다리는 1967년 4월 27일 소양2교가 건설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이 콘트리트 다리 역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 못했던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1995년 말 1차개통(2차선)에 이어 1997년 소양2교(4차선)를 완공한 것이 오늘날의 소양2교이다.

포니 대령을 기리는 안내비[기념비]는 원래 목교가 위치한 현 소양 2교 초입에 설치됐지만, 2014년 현재의 장소인 소양강 처녀상에 인접한 장소로 이전했다.

또한, 포니브리지의 유래에 관한 기념비를 추가설치해 시민들에게 다리의 기원과 역사적 의미를 전하고 있다.



소양2교 북쪽에서 본 포니브리지 안내비[기념비]와 2014년 10월 17일 남쪽 소양강처녀상 옆으로 이전한 안내비 및 기념비(우)

영

화

책

문화에
빠지다 秋

Food, Movie, Book..





혼밥족.. 25 X 20cm 사각형에 목숨? 걸다.

이관형 (춘천한길교회 권사)

시간이 없는 걸까? 돈 여유가 없는 탓일까? 바야흐로 집밥의 열풍은 사그라지고 편의점 도시락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집밥은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기에 가끔 외식도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밖에 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귀찮고 위험하다. 그래서일까? 이젠 집밥보다 더 싸고 맛있는 편의점 도시락과 도시락 전문점이 집밥보다 더 대접받고 있다.

하지만 간편식인 편의점 도시락의 단점이라면 차갑게 보이는 알파한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찜찜하게 데워먹는다는 것이다. 다들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믿기에는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도시락 전문점이다. 도시락 전문점은 즉석에서 조리해서 금방 시식을 하는데 편의점보다는 가격대가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즐겨 먹는다.

편의점 도시락은 「김해자 도시락」을 선두로 「해리 도시락」 그리고 「백종원 도시락」,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싸구려 음식 취급을 받던 예전과는 달리 이젠 '편도족(편의점 도시락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먹고 있다. 필자도 바쁜 직장업무에 쫓기다 지친 퇴근길에 모임 회식이건 집밥이건 간에 다 귀찮아서 그냥 편의점 도시락을 사 들고 와서 식탁도 아닌 소파 협탁에서 먹을 때가 종종 있고, 그러다 먹다 남은 반찬이 많이 있으면 그냥 버리지 않고 반찬통에 잘 보관했다가 다음 끼니에 꼭 챙겨 먹는 공상을 떨고 있다.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을 혼자 먹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 식사 중 스마트 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의점 도시락은 여러 사람이 사교활동을 하듯 삶의 재미를 나누는 식사형태가 아니라 주로 혼자 먹어 함께 먹는 데에 의미를 두지 않기에 우리 사회의 집단문화가 붕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초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외로움이란 친구와 함께 편의점 도시락을 도대체 몇 개를 사 먹어야 하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본 적이 있다.

우리 교회엔 기러기 아빠인 권사님이 계신다. 같은 남자이고 동년배라 가끔 허물없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동병상련 같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혼자라서 외로우시죠?' 라고 했더니 이런 답 글을 보내왔다. '성령님이 늘 저와 함께 계셔서 전 외롭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권사인데도 여러모로 참 부러운 권사님이시다.





미나리 Minari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작년과 올해는 대한민국 영화사에 길이 빛나는 최고의 경사로 기념비적인 역사를 만든 해라고 할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의 중심 미국 아카데미에서 대망의 작품상을 거머쥐었고, (비영어권으로는 92년 아카데미 영화사상 첫 수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이어 올해는 연기부문에서 여우조연상까지 받는 기염을 연달아 토해내는 중이다.

그 여우조연상의 영예를 안긴 영화가 <미나리>인데 50여 년간 수많은 한국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 온 관록의 배우 윤여정이 대한민국 배우 중 연기부문 첫 오스카를 손에 든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이 소중한 보석같은 영화에 역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다수도 출연하는데, 참 소박하고 맑은 분위기의 작품이다. 아카데미 외에 다른 영화제에서도 주요 비평가협회상을 포함해 세계 영화 시상식을 휩쓸었다.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까지 <미나리>가 현재까지 들어 올린 트로피는 75개에 이른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시골

마을에 정착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성별 감별사로 일하던 제이콥(스티븐 연)은 농장을 일구겠다며 아내 모니카(한예리), 딸 앤(노엘 케이트 조), 막내아들 데이비드(앨런 김)를 이끌고 아칸소주에 정착하고자 한다. 얼마 후 이들 부부를 돕기 위해 모니카의 엄마인 순자(윤여정)도 미국으로 건너온다. 영화는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는 가족을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로 상징적으로 암시하는데 그 따뜻한 고국의 정서를 함축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윤여정의 연기가 일품이다.

잔잔하고 여운 있는 감동의 이 작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사랑이 온전히 스며있다는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우수한 영화에 우리 기독교인의 진리가 함께하는 것에 커다란 감사와 긍지를 느끼게도 한다. 영화에서 주일에 시골의 소박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주인공 제이콥과 좋은 친분으로 온정을 나누는 친구 폴(Paul, 바울)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들판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나오는 장면만 해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신앙의 상징들이다.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헤드라인’은 “‘미나리’는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제이콥과 모니카는 예기치 않은 (기독교적) 축복을 경험한다.”라며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인내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라는 기사와 더불어 이 영화

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리한 국민일보 기사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화에 나오는 트레일러 벽에 십자가 등 기독교적 상징물이 있다. 또 어머니가 찬송(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을 듣는 장면이나 가족들이 시골 교회에 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가족들은 주일예배에 참석해 대부분 백인인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교회 목사는 설교단에서 가족들을 향해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쁩니다’고 말한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낯선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영화에서는 다소 근본주의적이며 은사주의적인 신앙 형태도 등장한다. 나름대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제이콥의 이웃인 폴은 제이콥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한 다음 제이콥과 포옹한다. 또 다른 장면에서 폴은 자기 집 주위를 다니며 기름을 뿌리고 문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다.

아칸소는 미국 남부의 강력한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이들 교회의 정서는 정 감독과 그의 가족에게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아칸소 시골 교회와 신자들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미나리는 두 가지 기도 응답을 포함한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에 대한 실현이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독교어

아 침 찬 송

시골 목사님이 서울 동생 집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아침, 누군가의 노랫소리에 잠을 깬데 알고 보니 제수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목사는 “야, 우리 제수는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는구나! 하며 흐뭇해했다.
아침상을 받으면서 목사는 제수를 칭찬했다.
“제수씨,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시니 이 집은 축복받은 집입니다.”
칭찬을 받은 제수는 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목사님,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다음 아니고요,
1절을 부르면 계란이 반숙되고,
2절까지 하면 완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조절하느라고요.
호- 호-호.”





김복동

Salvation 2014-10
248.3×147.5cm | oil on canvas & wood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 Caravaggio / 1600-1601 / oil on canvas / 산타마리아 델 보폴로 미술관 소장

예수의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목도(目睹)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절박한 공포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간적인 사람이었음을 카라바조는 표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건 이후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의 여정은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결국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그분께 주인 된 권한을 맡기는 것, 미생을 완생으로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작가 노트 中)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 (안디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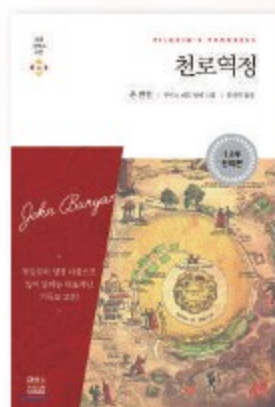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덩달아 책이 그리워진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뜨거워질 것 같아 바라는 마음과 몸도 마음도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한다.

『천로역정』

존 번연 지음, 루이스 레드 형제 그림, 유성덕 옮김, 크리스천다이제스트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이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을 비유와 우화로 풀어내면서도 그 내용과 가치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 문학 사상 열 손가락에 꼽히는 기념비적인 책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백과전서로서 세계 100여 개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칭송한 책. 1부는 남편 크리스천의 신앙여정을, 2부에서는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의 신앙여정을 그린 것으로, 번연 자신과 가족의 신앙과 삶이 담긴 자전적인 내용이다. 큼직하게 나누어진 구원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이의 현재 자리와 문제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힘을 돌아 준다.

추가하여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강해한 <이동원 목사와 함께 걷는 천로역정>을 곁에 두고 읽는다면 읽어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쯤엔 가평 필그림하우스의 천로역정 순례길도 권하고 싶다.



『어른답게 말합니다』 강원국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말을 빠른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말다운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몸은 어른이지만 미숙한 말의 습관으로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데, 대기업 회장과 전직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저자가 총 7장에 이르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읽기 쉽도록 풀어간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유념하고 곱씹는다면 말 많은 세상에서 말 같은 말을 하며 품격 있는 삶이 되겠다는 것을 배운다.



레드 푸드의 대표 토마토의 신비

토마토를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일년감"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남만시라 하는데 토마토는 세계 10대 건강 음식 중 하나로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토마토가 익는 계절이 오면 의사들은 환자가 없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준 만병통치 식품으로 먹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 저당도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당분의 질량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웬만큼 많이 먹어도 살이 찌거나 과도한 영양분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풍부한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몸속 노폐물의 빠른 배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찌거나 익혀 먹으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압과 싸우는 능력을 증가시켜 압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하며,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 C는 감소하지만 유익한 화합물인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인 리코펜(토마토나 다른 과일을 붉게 만드는 데 관여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이 증가하여 암이나 심장질환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노화 방지는 물론 늙지 않고 항상 싱싱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니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각종 혈관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영양성분 함량

수분 92.0%, 단백질 2.0g, 탄수화물 4.6g, 칼슘 4mg, 인 70mg, 비타민 A, C 21mg. 아무튼, 토마토는 단맛은 별로지만 '신의 음식'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익한 과일이 아니라 채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체가 부실해 고개 숙인 남성들과 늙지 않고 더 예뻐지기를 바라는 여성들은 죽기 살기로 빨간 토마토를 많이 드시고 빨갛게 생기면 마음으로 빨간 토마토처럼 탱탱한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과일은 사과와 딸기이며, 바나나와 사과를 같이 둔다거나 가지와 토마토를 같이 두면 쉽게 상하니 한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의 효능

- 각종 암의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 동맥경화를 막아주며
- 혈압을 낮춰 주고 부종을 없애고
- 당뇨병을 예방하고
- 소화를 돕고 피로를 풀어주며
- 정자 수가 늘어나 정력이 증진됩니다.

[출처: 네이버]

여름 저녁

시인 정명성

팔미감리교회 담임목사 / 강원기독문인회 회원(시)

무더위는 제풀에 지쳐
저녁이 되기 전 소나기를 쏟아냈다

맑아지는 동쪽에 걸리는 무지개
기우는 별에 빛나는 뭉게구름 덩이들

한차례 소나기에 보를 넘는 시냇물
숲에 들었던 바람이 몰려나오는 냇가
바람을 물고 재잘대는 작은 새들
바람 타고 멀리 흐르는 매미 소리

황혼이 저무는 서산 위 하늘
열구를 사이로 가물거리는 개밥바라기 별빛

밤꽃 흐드러진 서산(西山) 아래 마을
작은 교회당 하얀 십자가 불빛



춘천시사회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곽복연	곽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대순	김영선	김영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영수	김철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복	김종숙	김종목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명	김준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남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민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해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하	변영숙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연애
석지찬	성숙자	성원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근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정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진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소출	연정화	연희희	연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윤애중	윤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영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목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민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운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원래	이용숙
이원일	이유규	이은주	이은경	이은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창희	이희희
이춘선	이종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봉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창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종현	조진경	조현우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문용	지문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동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순경	최순태	최순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생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유옥	하은희	한영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민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엄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용							

후원교회

갑 리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 교 회	거 성 침례 교 회	그 말씀암문교 회	금 신 교 회
나 능 성 결 교 회	동 신 장로 교 회	밝은빛장로교 회	사 랑 의 교 회	사 암 성 결 교 회	새 춘 천 교 회
석 사 감 리 교 회	소 양 성 결 교 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 복음열린교 회	순 복음제일교 회	순 복음조은교 회
순 복음춘천교 회	신 북 교 회	신 성 감 리 교 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엘 교 회	염 마 오 교 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 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포침례교 회	온 누 리 교 회	우 두 감 리 교 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앙 교 회	주 향 장로교 회	축 복 교 회	춘 천 광 명 교 회	춘 천 광 영 교 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 회	춘 천 예 답 교 회	춘 천 우 리 교 회	춘 천 은 평 교 회
춘 천 은 혜 교 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 천 제 일 교 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 천 침례 교 회
춘 천 평 화 교 회	하 늘 평 안 교 회	한 빛 교 회	한 울 성 김 교 회	혈 동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술 교 회	산 천무지개교 회	제 자 감 리 교 회	하 늘 기쁨 교 회
성 광 교 회	침 이 있 는 교 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갯거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침략의 기쁨 행복제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편집·발행 춘천시사회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에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유치원 개원30주년

(구.은광유치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자연유치원은

코로나19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부터 안전한 테마파크입니다.

신입생 모집상담 ▶ 행정실 ☎241-5511



“행복한 보금자리 · 은혜의 복음자리”

사랑으로 섬기는

새날요양원 **신축개원**



옥상하늘빛쉼터



옥상야외문화 공연무대



1층로비



- 생활실 100%남향배치
- 베테랑 전문 인력
-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
- 다양한 프로그램

※입소는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의암호반 북한강변



대표 고영현 (춘천중앙교회)

 **새날요양원**
PREMIUM NURSING HOME

033.243.1881 / 010.2901.1379

강원도 춘천시 윗가래목길9-25 (사농동 현대아파트 건너편)